



책속인물에게 보내는
한글손편지

제6회



안녕하세요. 누쌤 아저씨. 저는 서울에 사는 소연이에요. 요즘 이곳에는 코로나 때문에 불편한 마스크를 계속 써야 하는데, 아저씨가 사는 옛날에는 마스크를 쓰지 않아도 되어서 좋겠어요.

저는 외출이 어려워 집에 있으면서 엄마와 수학 문제를 풀어요. 가끔 모르는 문제가 나오면 더 이상 풀고 싶지 않을 때가 있어요. 그런데 아저씨가 끝까지 메머드를 잡으려고 하는 모습이 대단해 보였어요. 아저씨가 어떤 어려운 문제도 계속 풀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아저씨는 하나 남은 그늘 자리를 어떻게 다른 사람에게 내주어요? 저희 집에는 5살 동생 승우가 있는데, 양보할 때 가끔 힘들어요. 승우는 정말 끝도 없이 태극을 쓴다니까요! 게다가 동생과 싸우고 엄마에게



문화체육관광부
국립어린이청소년도서관



문화체육관광부
국립한글박물관